

□ 현재 취급제한유독물로 지정된 *4종 중에서 가장 많은 양(97%)을 사용하고 있는 사염화탄소(carbon tetrachloride)는 옥외살충제용으로 제조, 수입, 사용은 금지되고 있으나, 그 외의 용도인 세척제 및 살균, 소독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(Methyl bromide), (Carbon tetrachloride)
(Trialkyl tin hydroxide), (Arsenic pentoxide)

□ 향후 환경부에서는 이번 조사·분석결과를 반영하여

- 첫째, 유독물 영업자관리 및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독물 유통·취급실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독물 유통·취급량 등 현황 파악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관할기관의 유독물영업자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

'03. 12

5,467

6% 가

- 둘째, 유독물 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판매업(전체 유독물영업자의 56%)에 대하여는 유독물영업등록시 관리자 선임, 자체방제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사항을 면제해 주는 등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선하며
- 셋째, 취급량이 가장 많은 대규모 산업단지내 유독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독물 지도·점검시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
- 이밖에도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취급제한물질 등에 대한 유독물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.